

●그리스도왕 대축일 강론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 임금이 되어 주오.” 하고 올리브나무에게 말하였으나 “신들과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하며 거절했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같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임금이 되어줄 것을 청하자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너희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에 몸을 피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터져 나가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을 삼켜버리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면서, 또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판관기의 우화가 떠올랐습니다. 후보자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며 여러 가지 공약을 앞세우고, 자신이 이 나라를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국민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는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지도자들은 ‘빈정’거리고, 군인들은 ‘조롱’하고, 죄수는 ‘모독’하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은 침묵만 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 기름부음 받은 자는 다윗 왕과 같이 정치·경제·군사·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왕 이여야 했습니다. ‘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시는’(이사 9,3) 사람을 기대했는데,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가는 예수는 분명 거짓 메시아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남은 구했으면서 자신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다면 ‘남을 구하면서 자신도 구하는 사람’이 메시아란 논리도 이상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구할 필요가 없는 생명 그 자체여야 메시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애써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고 ‘남은 구하면서도 자신은 구하지 않는’

살신성인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조롱의 표시로 ‘이자는 유다인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습니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본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하느님’뿐이었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을 종살이에서 이끌어 내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어떤 아쉬움도 없게 해주시는 피난처요 산성이요 구원자요 방패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언짢아진 사무엘에게 주님은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1사무 8,7)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통치받기를 선택하면서 임금을 세울 때 감수해야 하는 온갖 것에 대해서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첫 왕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왕정제도를 허락하셨지만 왕과 백성은 하느님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기름부음 받은 왕의 임무는 하느님께서 하셨듯이 자기 백성을 물질적·영적으로 잘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고 세 번이나 당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대부분 이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참된 임금, 메시아는 겸손하여 평화를 이루시고 백성들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고 예언자들이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예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

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당신 백성들을 먹여주고 치유해 주고 받을 씻어주면서까지 그들을 섬겼으나 배반당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은 바보같이 착한 왕, 그의 왕관은 가시관이요, 반지는 못이요, 옷은 벌거벗김이고, 침상은 십자가였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이들은 구하면서도 자신은 구하지 않는 왕’,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말씀을 끝까지 실천하며 두 죄인 사이에서 죽어간 왕입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는 대답을 들은 죄수는 끌려있는데 첫째가 되어 하느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이 왕은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생명의 왕이면서도 우리의 음식이 된 사랑의 왕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지상 목표였습니다.

경제성장이 아니라 서로 나눔으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개발과 편리한 삶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살며, 무한 경쟁이 아니라 각자 받은 선물을 꽃피우게 함으로써 서로를 즐기고, 생명을 조작하는 행위를 절대 묵인하지 않으며, 평화를 위한 구실로 전쟁을 하는 일이 없으며, 특별히 작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의 소리에 민감하고, 힘의 논리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힘과 권위가 있으며, 언행이 일치하는 정의롭고 당당한 왕. 이런 왕을 섬기는 이는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은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듣거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이라. 네 거레와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이에 임금이 네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44,11--12ㄱ: 최민순 역) 세상의 온갖 것을 뒤로하고 주님께 몰두하는 그것이 미모요, 임금이신 주님께서서는 이런 미모에 사로잡히십니다.

정 세라피아 수녀(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 11월 위령성월 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이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으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 기도합시다.
-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주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미사시간 변경 안내

오는 12월 2일 첫 주일 부터 미사시간이 현재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로 한 시간 늦어집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축! 고 안드레아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11월 30일은 고원일 본당신부님 영명 축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육간의 강건과 올바른 사제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저희 공동체 신자들의 영적선물 봉헌-
목주기도:808단/ 미사참례: 22회/희생:15번
사제를 위한 기도:85번/화살기도:75번

◎ 성탄 대축일 판공성사

1차:12월 2일(첫 주일)-오후 4시~미사 전까지/
미사 후-신부님 별도공지
2차:12월 23일(넷째 주일)-오후 4시~미사 전까지/
미사 후-신부님 별도공지

◎ 매일미사책 신청접수

2008년도 1년 정기구독을 신청 받습니다. 희망자는 박재영 선교부장에게 구독료 \$48을 12월 2일까지 필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선볼링클럽 안내

매년 동절기 마다 교우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되어온 친선볼링클럽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12월 3일~2008년 3월말 까지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Brunswick Bowling Centre (전년과 동일)
▶문의: 윤명원 행사부장

◎ 합창단 초청 음악회 티켓 판매

환상의 화음으로 정평이 나있는 K-W 경찰 남성합창단과 브루벨일챔버 합창단이 St.Anthony Daniel 현지성당의 친교실 건축자금 마련을 위해 초청음악회를 갖습니다. 많은 협조바랍니다.
▶시간: 12월 7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St. Anthony Daniel 성당
▶티켓가격: 개인-\$10(18세 이상),가족-\$25(부모+18세 이하 아이들)
▶티켓구입문의:이명희 관리부장

◎ 바느기도회

11월 28일(수) 오후 7시30분/ 박용대 형제집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아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송년 확대 사목회의

일시:.12월 16일(셋째 주일)-미사 후
장소:박재영 바오로 형제집
비고: 각 부서 차장, 총무 및 각 구역장, 율뜨레아 간사, 총무 포함

◎ 주간 전례

▶11월27일(화) 오후 8시, 연중 제34주간화요일
▶11월29일(목) 낮 12시, 연중 제34주간목요일
▶11월29일(목) 오후 8시, 연중 제34주간목요일

◎ 성모 신심미사

12월 1일 토요일 낮 12시 성모신심미사

◎2007년도 한인 합동 율뜨레아

일시 : 2007년 12월 7일(금)
시간 : 6:00PM - 10:00PM
장소 : 한맘 본당 친교실
꾸르실리스타분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유 없는 삶은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파로사와 단순 파로는 대개 종이 한 장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좀 쉬어야 하는데...”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멈추면 삽니다. 그 순간 휴식을 취하면 회복이 됩니다. 파로사는 잠깐 쉬지 못해서 아주 쉬어버리는 현상입니다

2007-47

2007. 11. 25.

그리스도 왕 대축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례

해 설 박인선 차주 해설 김직현

화 담 송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야!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73) 만민의 왕 그리스도
봉 헌 (517) 내가 절망속에
성 체 (166) 생명의 양식
퇴 장 (82) 주 찬미

독 서
11월 25일 노원균 노속희
12월 2일 김영삼 김정현
12월 9일 이동기 이정숙

봉 헌
11월 25일 이명희 이상희
12월 2일 노원균 노속희
12월 9일 김영삼 김정현

복 사
11월 25일 하람 한힘
12월 2일 지홍 현재
12월 9일 원영 지헌

2007년 11월 18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695.52
Total:	<u>\$695.52</u>